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박 동 재

연세대학교
석사

이 동 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자료를 Strauss와 Corbin이 제안한 근거이론 코딩 절차 및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과 관련된 112개의 개념, 52개의 하위범주와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사건들로부터 내적 갈등을 겪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며, 심리적·생활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이들의 문화정체성 협상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단기 이민자에 속하는 중국인 유학생 또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과 이들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시간적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관한 상담적 시사점, 타 집단의 문화정체성 협상과의 비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 협상, 근거이론

* 본 연구는 박동재(2024)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근거이론 접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위당관 612호

Tel : 02-2123-2437, Email : lee82@yonsei.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2년 12월 기준 재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2021년에 비해 9.6% 증가하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은 대학 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교류 및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므로(Heppner, 2006),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에게도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수용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Lee & Rice, 2007; Sherry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한 유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한국 유학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교육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할 수 있으며(마효정 등, 2022; 이경상 등, 2018),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수진, 한규석, 2009).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2022년 12월 기준, 40.4%, 67,439명)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유학생들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에 관한 이해와 심리적·물질적 개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Bertram et al., 2014; Zhang-Wu,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데(권란, 하정희, 2023; 김경숙, 김민희, 2014; 조용비, 이동혁, 2018; 진미경, 조유진, 2011),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화된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심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현진, 2022).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고훈우 등, 2017; 곽정, 2018; 안혜신, 장유진, 2024; Ching et al., 2017; Sue & Zane, 1985). 그러나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은 언어적 문제, 외로움, 차별과 같은 문화적응과 관련된 요소에서 기인하며(Berry et al., 2006; Cao et al., 2016), 중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고민은 학업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적응 전반에서 나타난다(권태희, 정현희, 2020). 또한 거주 환경, 교통환경, 재정 및 건강 문제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적응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Hu & Zhang, 2013; Tseng & Newton, 2002) 대학 생활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대학생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경계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맥락인 이른바 ‘문화적’ 차원에서 이들의 적응에 초점을 두어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원활한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가족과의 동거 여부, 한국어 능력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홍직, 2011; Cao et al., 2017; Luo et al., 2021)과 더불어 성격, 정체성, 주체성,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내적요인(김정아, 김인경, 2011; 류루루 등, 2023; Wei et al., 2012)과 문화충격, 지

각된 차별감,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Bertram et al., 2014; Juang & Cookston, 2009; Yan & Berliner, 2011) 등으로 광범위하게 다양하며,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 또한 문화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1997; Cao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그중 특히 국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문화맥락에서 한 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 중요하며, 원활한 적응전략을 도모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Berry, 1997; Schwartz et al., 2007)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에 초점을 두어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정체성은 동일한 문화, 사회계층, 성별, 종교 집단 등으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선운, 2019; 정진경, 양계민, 2004).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개인이 특정 문화에서 공유되는 가치, 인지, 행동 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Collier & Thomas, 1998; Ting-Toomey & Dorjee, 2019)을 반영하는 자기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정체성은 타문화와 접촉 시,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선택에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생소한 환경에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Choudhuri, 2011/2015),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해당 문화에서의 경험을 통해 문화정체성은 변화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정체성이 교차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LaFromboise et al., 1993; Ryder et al., 2000). Schwartz 등(2006)에 의하면 문화 적응과

정에서 개인의 문화정체성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민자 또는 본 연구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다룰 때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응모델에서 제시된 문화적응에 중요한 개인 변인 중 하나로 문화정체성과 밀접한 ‘민족정체성’(Schwartz et al., 2006)이 제시된 것을 감안할 때, 문화정체성은 개인의 문화적응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주로 연구한 Berry (1997)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정체성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을 살펴본 국내 개념도 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적 자기(cultural self)’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정체성의 변화가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군집분석을 진행한 연구(정옥정 등, 2021)에서는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취약형’(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고) 및 ‘고독형’(한국 내 대인관계 차원에서 많은 부적응을 보이는 군집 비율이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체류가 항상 긍정적인 문화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대목이

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유아신, 최아론, 2021; 이현진, 2011),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보고되기도 하여(김세경, 2017; 이예슬, 김은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과 문화·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권태희, 정현희, 2020). 정옥정 등(2021)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류 기간을 적응의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모델이나 Atkinson 등(1993)이 제안한 소수집단 민족·문화정체성 발달 모델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다룰 때 문화정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의 일부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국내 메타연구(권태희, 정현희, 2020)를 보면, 문화정체성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소수집단의 민족·문화정체성 변화·발달을 설명한 다수의 모델의 경우, 주로 미국 배경에서 생활하는 흑인(Cross, 1995), 아시아계 미국인(Sue & Sue, 1971), 일본계 미국인(Kitano, 1982), 라틴계 미국인(Ruiz, 1990) 등을 대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주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의 태도 및 신념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Sue & Sue, 2008/2011). 따라서 이전 모델들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변화를 유발하는 인과적·맥락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

해 문화정체성을 변화해 왔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정체성 간의 협상(cultural identity negotiation)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및 경험을 통해 개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재구성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협상(negoti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Cohen, 2001). 협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발전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탐색하는 상호작용이다(조진경, 2016; 조창연, 2012). 특정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일부 정체성과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등해소의 동기로 작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최희, 2020; Jenkins, 1996). 또한 개인과 타인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자신의 일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촉진되고 유지된다(최희, 김영순, 202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ummins(2000)는 유동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권력위계에 의해 형성되는데, 개인은 상황에 적합한 정체성, 즉, 타인 및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과정에서 개인은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체성 협상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목표 달성 욕구의 저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합의 또는 타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희, 2020; Swann, 1987).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에 초점을 두어, 문화정체성 협상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개인이 해당 문화에서의 소속감, 타인의 인정 및 심리적 안녕감을 얻기 위해 본래 문화정체성에 변화를 가하고,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정체성 협상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과 문화집단 간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다(Ting-Toomey & Dorjee, 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협상을 살펴본 국내 연구가 있으나(김정희, 김영순, 2018) 연구 참가자가 재한 중국동포(‘조선족’)이며, 참가자 수 역시 2명으로 상당히 적어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드러낼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포함한 문화적응을 예측하는 핵심변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Smith & Khawaja, 2011; Sussman, 2002)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한다면, 심리상담 장면에서 이들의 문화적응을 돕는 과정 중 적응적인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보다 세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특정 문화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문화정체성을 지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그들의 문화정체성

협상을 이루어내는가?’로 결정하였다.

방 법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촉발요인이 있었는지, 또 마주한 갈등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하였는지 등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Glaser와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지금까지 특정 현상과 관련된 적절한 개념이 파악되지 않고,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련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기존 이론에 관한 수정 또는 분명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연구자는 특정한 주제 또는 현상과 관련된 개인들의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관련된 개념을 파악하고 범주를 도출한 후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론적 논의를 다루거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Creswell & Poth, 2018/2021).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및 이의 변화과정을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기존 문화정체성 발달 모델로 이들의 문화정체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점이 존재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화정체성의 변화과정 및 그에 기여하는 맥락적 부분을 근

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참가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참가자 선정 기준

‘한국문화 및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정체성 인식 및 변화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으로서 한국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정체성의 협상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연구 참가자는 ‘문화적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구대상은 한국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며 자신의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Cohen & Kassan, 2018) 중국인 유학생들로 제한하였다.

국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민족(民族)’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곽이문 등, 2018; 이예슬, 김은하, 2015). 이는 한족(漢族)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朝鮮族)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며(남순현, 2021; 이윤희 등, 2022), 한국 사회의 각 민족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대가 상이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현옥 등, 2014; 임춘희, 2009).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한족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관련 요인 중 문화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한족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특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심리적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나

병원에서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의 경우 연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연구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 및 참가자 특성

참가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표출(theoretical sampling)과 참가자들의 직접적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을 시행하였다(Creswell & Poth, 2018/2021). 먼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가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특정 대학에서만 참가자가 모집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 외부의 중국 지인에게 모집 문건을 홍보하도록 부탁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1차적으로 본 연구면담에 참가 의사를 밝힌 총 참가자는 33명이었으며, 그 중 학부생이 아닌 유학생 11명과 한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학부 유학생 1명을 제외한 21명을 잠재 면담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대면으로 90~120분간 진행되었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문화정체성 협상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1차 수정을 진행하였다. 1차 수정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의 예로는 “OO씨의 문화적 뿌리는 어느 문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문화 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문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셨나요?”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질문과 비슷하다고 느낀 질문들을 상담 전공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단과 논의하여 이에 관한 수정 및 삭제 등을 통해 수차례 질문 목록을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참가자가 이론 문화정체성 협상(예, “어떤 상황에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셨나요?”), 참가자가 지각한 문화적 변화(예,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포기하거나 바꾸게 된 중국 문화적 특성이 있으신가요?”, “어떤 면에서 [중국/한국]문화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유학의 영향력(예, “중국에서 ‘학생’으로 있었을 때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있을 때 자기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OO씨의 자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와 관련된 주제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요소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과정인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할 것을 강조한다(Cohen & Kassan, 2018). 이에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과 관련된 개념들을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2번째 참가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론적 포화에 도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13번째 참가자와의 면담에서도 추가적 개념 또는 이론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는 총 13명과의 면담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3인의 연구 참가자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해당 정보들은 참가자들의 정보 공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표 1. 연구 참가자 기본 정보

참가자	나이	성별	학교	학년	어학당 이수 기간	한국 연속 거주 기간
A	24	남	Y대	3	1년 6개월	3년
B	23	여	Y대	5	1년	4년 5개월
C	25	여	Y대	3	1년	3년
D	21	여	E대	2	1년 6개월	3년
E	23	남	D대	3	1년	3년
F	26	남	S대	4	1년	4년
G	23	여	H대	4	6개월	4년 4개월
H	24	여	H대	4	1년	3년 6개월
I	24	남	S대	1	1년	3년 6개월
J	23	여	H대	4	1년 6개월	3년
K	26	남	D대	4	1년	4년
L	26	남	K대	4	1년	4년
M	25	여	C대	3	1년	3년 6개월

만 제시되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족 유학생 여성 7명과 남성 6명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21~26세로 평균 24.1세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연속 거주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5개월이었고 평균 연속 거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 대학 입학 이전에 어학당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어학당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이었고 평균 이수 기간은 1년 1개월로 나타났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전체 연구 수행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7001988-202312-HR-2033-03). 참가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 시작 전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면담 진행 방식 및 예상 시간, 면담 도중 진행 중단 가능 여부,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 불참여 시 불이익 없음의 조건,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였으며 참가자의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모두 받은 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중 참가자의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면담 종료 후에 참가자에게 면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재차 확인하여 참가자의 심리적 안녕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근거이론 접근을 적용한 연구에서 최종 이

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 분석 절차는 ‘코딩(coding)’으로 알려진 분석 방법이다. 코딩은 자료를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로 세분화하고 각 구성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Sbaraini et al., 2011) 연구자가 원자료로부터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Walker & Myrick, 2006). 근거이론 연구에 의하면, 기본적인 코딩 유형으로써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총 세 가지가 존재한다(Corbin & Strauss, 1990).

우선 개방코딩은 연구자가 수집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자료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자료를 분할하여 특정 현상에 관한 범주를 만드는 분석 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 Poth, 2018/2021).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는 각 자료 간 지속적인 비교를 하며, 자료에 관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미 단위 차원에서 자료를 범주화한다(Thornberg et al., 2014). 이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자는 먼저 전사된 자료들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자료들을 한 줄씩 읽으며 자료에 담긴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줄단위 분석을 시행하였고, 도출된 유사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 및 범주로 발전시켰다. 축코딩의 경우 연구자가 개방코딩에서 얻은 하위범주와 범주들을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0). 해당 과정에서 각 범주 간 관계는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되며 이를 범주분석(category analysis)이라고 지칭하는데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

(consequence) 등의 기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2001). 이어서 연구자는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작용/상호작용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범주 및 범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핌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Strauss & Corbin, 1998/2001)을 거치게 되며 이를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이라고 지칭한다. 본 연구자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속한 요인들을 재확인한 후 범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은 다양한 범주들을 통합하고 과편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교하게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Strauss & Corbin, 1998/2001)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는 무엇을 핵심범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핵심범주라 함은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주제 또는 중심현상을 의미한다. 이어서 선택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 간 관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가설적 관계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최종 이론적 모델을 구축한다(Lincoln & Guba, 1985).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축코딩에서도 출된 범주들의 관계와 전사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며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구체화하였다.

연구자 준비도 및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은 연구 수행의 핵심 도구가 되므로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점검하고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탐색해야 한다

(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자는 중국에서 7년 이상 현지 학교생활 및 귀국 후 적응의 과정을 거친 까닭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문화정체성 협상을 이루었는지에 관한 실제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문화정체성 협상’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생생한 예시로 설명하는 일에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상담실습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 내담자 6인 이상을 상담하며 일부 내담자가 한국사람처럼 되고 싶은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및 대학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문화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주체적인 문화정체성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문화정체성 협상’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대학원 과정 중에 질적 연구 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절차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근거이론 관련 국내·외 서적을 포함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한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찾아 읽는 방식을 통해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였다.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의 성격과 연구의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질적 연구 평가 시 충족시켜야 할 확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Corbin & Strauss, 1990). 그럼에도 Strauss와 Corbin(1998/2001)은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형성된 이론 자체에 관한 타당성, 연구 과정의 적절

성, 연구의 경험적 근거 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는 전체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로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평가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연구 전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에서의 내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최종 연구 결과가 얼마나 현상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지를 뜻하며(Guba & Lincoln, 1994), 특정 현상 또는 주제를 경험한 개인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험의 서술과 해석을 자신의 경험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들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최종 연구 결과인 문화정체성 협상 이론의 모델을 면담 참가자 8인에게 제시하여 자료 분석 결과에 관한 피드백 역시 수렴했다. 적용 가능성은 양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Guba & Lincoln, 1989), 최종 연구 결과가 연구적 맥락이 아닌 상황 또는 연구 참가자 외의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면담 참가자들의 경험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만 직접 면담에 참가하지 않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 2인에게 최종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자신의 유학생 생활 중 이루어진 문화정체성 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역시 검증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 참가자와 유사한 조건을 지닌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반복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Guba & Lincoln, 1994).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는 자료를 통해 발견된 개념, 하위 범주 및 범주들에 대하여 상담 전공 교수 1인에게 전반적인 검토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술연구교수 2인에게 연구 분석 결과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토 및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 절차에서 명명된 개념과 범주들을 필요시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중립성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관한 객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이 확보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다(Guba & Lincoln, 1989). 즉, 전체 연구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들과의 지속적 의견 교환과 연구 참가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편향성을 계속 관찰하고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상담 전공 교수 1인 및 다수의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학술 연구 교수 2인과 함께 연구주제, 목적, 분석 결과 및 최종 이론적 모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특정 관점을 증명하려는 의도 또는 이론적 지향 없이 연구의 진실성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 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이 어떠한

협상 과정을 거쳐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 13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최종적으로 112개의 개념, 52개의 하위범주,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에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들의 관계를 축코딩에서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정리하여 표 2부터 표 7까지 제시하였고 전체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2.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유학을 결정함 중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함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결정함 	개인 외적인 유학 동기	한국 유학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에 한국 유학을 결정함 한국 예술 및 학업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결정함 	개인 내적인 유학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대학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는데, 한국 대학은 공부 분위기가 강함 한국 대학의 좋은 학업 분위기에 따라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됨 	한국 대학의 학업 문화에 대한 좋은 인식	유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라고 생각함 	학생 신분 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를 잘 못하여 교수님과 거리감 경험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우므로 중국 유학생들과만 지내게 됨 한국어를 잘 못하여 한국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과의 대면 상황이 무서웠음 한국 사람과 교제 시 자신감이 없음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람 대면 시 부정적 심리 상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경험함 한국 문화를 거부했을 때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부정적 심리 경험	편한 한국 생활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한국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한국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고자 함 	문화 수용의 필요성 인식	

표 3.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선후배 문화에 대한 불편감 • 존댓말 사용 문화에 대한 불편감 	한국의 전반적인 위계질서 문화에 대한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람들과 교제 시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친밀감 형성이 어려움 	한국 사람과 교제 시 거리감을 느낌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한국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사람임을 밝히면 한국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이 달라짐을 느낌 • 중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편견이 있음을 느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문화가 자신의 능력을 억압했음을 깨달음 • 중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희망 있다고 느낌 	중국 문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인식	중국에서의 억압된 성장 환경에 대한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통제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람 •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람 	억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람	

표 4.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현상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에 대처하기 위해 최 대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자 노력함 • 안전감을 위해 중국인 신분을 숨기고자 함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 호칭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함 • 유학생이지만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들처럼 열심히 노력함 	한국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함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성한 한국 대학생활을 경험하고자 한국 문화를 수용함 •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 문화에 유입되고 싶었음 	풍성한 한국 생활을 누리하고자 함	

표 5.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또는 발표내용을 한국 친구가 검토해줌 공부 또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 친구가 공유해줌 	한국 친구로부터 학업적 도움을 받음	한국인 친구들의 학업·언어· 문화적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반응을 배움 한국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자세한 일상 및 대학 문화를 배우게 됨 	한국 친구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임말과 최신 유행어 이해를 위해 한국 친구들 이랑 많이 대화하며 배움 	한국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언어문화를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선배와 친구로부터 어학당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음 	중국 친구로부터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움을 받음	중국인 친구들의 생활·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친구들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었음 어디든 중국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안전감을 줌 	중국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응은 혼자 해냈다고 느낌 문화적응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느낌 	중국 친구들은 한국 문화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서 중국 음식을 직접 요리함 중국의 영상 또는 뉴스를 시청함 	중국 문화와의 연결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중국어를 보게 될 때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함 	중국 사회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문화가 자신에게 중요하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낌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들으면 불편함 	가치관 형성에 미친 중국 문화의 영향	강한 중국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에 적응했어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음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중국 문화의 거리가 좁다고 느낌 	중국 문화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낌	

표 5.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계속)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그저 받아들임 어려운 일들은 피할 수 없으므로 낙관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발생한 일에 대한 빠른 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든 일은 당연히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문화는 없었음 탐구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함 	호기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함	한국 문화 수용에 유용한 개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뻔뻔한 태도로 한국어를 사용함 한국어를 못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음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좋아해도 괜찮다고 느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시간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게 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가 편해지고 더 세부적인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유입함	

표 6.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문화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긴 시간동안 노출시키기 한국 사람이 많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직접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주체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 문화 받아들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 수용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술을 안 좋아하지만 회식자리에 나가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마르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특성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로 하기 	기존 개인 · 문화적 특성 내려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무리와 비슷하게 행동하기 단호한 자신의 문화적 특성 포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문화적 습관 변화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사용 시 존댓말에 신경 쓰기 한국 사람들처럼 외모 꾸미기 한국 사람들의 화법 모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하기 	한국 사람들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 질문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기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학당 선생님, 교수님,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학교 동아리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높이기 	문화 수용의 통로로 활용하기

표 7.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결과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문화에 맞는 ‘모드(mode)’로 자신을 전환할 수 있음 •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하듯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두 문화에 맞게 바꿀 수 있음 	한국 문화정체성과 중국 문화정체성 간 전환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으로 돌아가도 한국 노래를 꼭 들어야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게 됨 • 생활습관이 모두 한국 문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 사람들의 사회생활 습관이 자신에게 나타남 	한국 문화적 습관이 귀국했을 때도 장기간 이어짐	두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한국 문화적 특징을 지니지만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서양문화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낌 	중국·한국 문화정체성을 지니지만 서양문화를 더 선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어 한국이 편하다고 느낌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고 대학 생활이 풍성한 느낌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어 한국의 문화 분위기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음 	한국 사회문화에 잘 유입하게 됨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이 한국 사람에 가깝다고 느낌 	한국 문화에 더 많은 연결감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예의 발라짐에 지인들이 놀람 • 중국 학생들을 만날 때도 허리 숙여 인사하게 됨 	예의 발라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됨 •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 관점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함 	사고방식이 풍성해짐	긍정적 성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 	자유롭고 독립적인 어른이 된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줌 • 한국에 여행 온 중국 지인들을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감 	중국 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음	두 문화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문화의 좋은 것들을 상호 수출하고자 함 • 두 나라 사람에게 각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간 교류에서 자신의 역할 인식	

표 7.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결과 (계속)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문화 간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여 문화정체성의 변화가 없다고 느낌 • 자신의 중국 문화정체성에 단지 한국 문화가 추가된 느낌 	<p>기존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못 느낌</p>	문화정체성 변화가 없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 • 중국 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p>자신에게 문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잘 배워도 한국 사람이 된 느낌보다 단순히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인으로 느껴짐 • 언어가 문화의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중국 문화정체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느낌 	<p>한국어 학습이 문화정체성의 변화에는 영향이 적거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과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면서 손을 흔드는 자신의 모습이 매우 어색함 •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게 느껴짐 • 중국에 돌아갔을 때 중국 문화 환경에 완벽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음 	<p>중국 문화에 잘 안 섞이는 느낌</p>	자기 불일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를 좋아함과 동시에 조국을 배신한 느낌 •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낌 	<p>초반에 자기 인식에 대한 혼란을 느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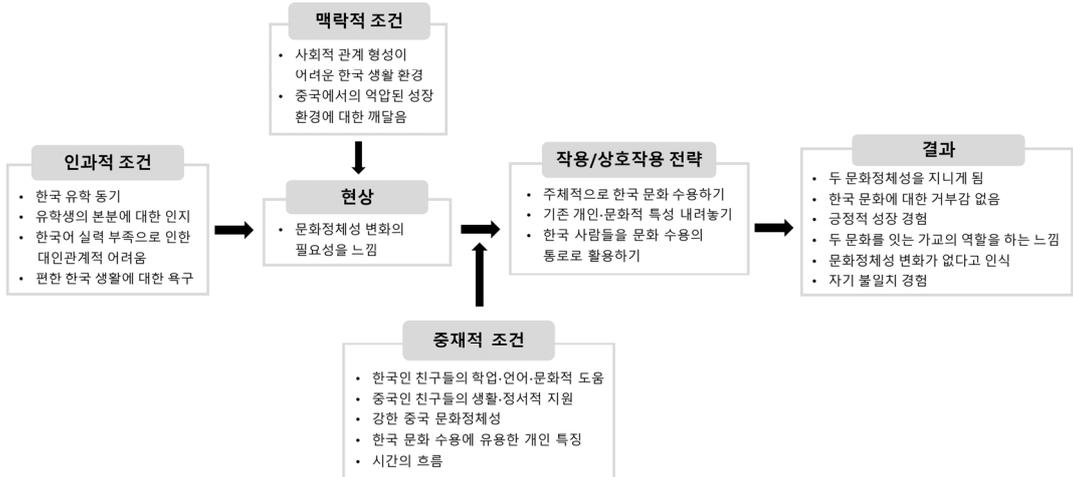


그림 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기초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의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사건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으로 도출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에는 ‘한국 유학 동기’, ‘유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편한 한국 생활에 대한 욕구’가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 문화적 분위기에...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선택하는 게 곧 이 문화 분위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다 아이돌 보려고, 케이팝 때문에 한국 온 게 아니고, 한국 대학이 제공하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거죠. (참가자 I)

자유는 좋지만, 너무 풀어지면...어쨌든 여기에 공부하러 온 거니까. 공부가 중요하죠. 제일(웃음)...(중략) 또 유학생이면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수업이 이해 안 되면, 교수님이나 선배한테 가서 바로 물어봐야 하고. (참가자 K)

일단 언어도, 중국에서는 모국어니까 말할 때 엄청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도 더 편하고, 친한 느낌이 들고. 근데 여기서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어떨 때는 교수님도 이해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이랑도

좀 멀어지는 느낌이고... (참가자 J)

이 학교에서 더 잘 생활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대학생생활,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봐야죠. (참가자 C)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가족적 맥락을 뜻하며 이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상황 또는 체계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한국 생활 환경’과 ‘중국에서의 억압된 성장 환경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났다.

그런 뭐랄까, 예의를 차리는 관계? 등급이 있는 관계. 전 항상 선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존댓말을 썼잖아요. 근데 언제 이걸 안 써도 되는지, 언제 ‘친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언제 즈음이면 친해진 건지, 또 상대방한테 언제 반말해도 되는지...이게 좀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참가자 G)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의 이런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그 문화에 좀 억눌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이랑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중국 문화라는 이 ‘태그(tag)’가 저라는 사람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든요. 약간 이 중국 문화가 저라

는 사람을 밀어내서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가자 M)

현상

현상은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경험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서 경험한 안녕감과 풍성한 삶에 대한 욕구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을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현상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자 함’, ‘한국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함’, ‘풍성한 한국 생활을 누리하고자 함’의 총 3개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게 뭔가 이 문화에 있으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 때 문화정체성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 안 좋은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한국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최대한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지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지도 보고, 그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참가자 M)

난 어차피 외국인이니깐 모두 다 날 돌봐주겠지, 그렇게 많은 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스스로 또 엄청 엄청 다른 한국 학생들이랑 똑같이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저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으면 적어도 존재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웃음). 그래서 다른 사람 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서 계속 계속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여기서 원래의 문화정체성을 갖고 생활하려다가 적응도 잘 못하고, 스스로 괴롭기만 하고, 그래도 강제로 자기를 끌고 졸업은 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고, 빨리 돌아가고만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가자 I)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의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가자들이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더욱 또는 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친구들의 학업·언어·문화적 도움’, ‘중국인 친구들의 생활·정서적 지원’, ‘강한 중국 문화정체성’, ‘한국 문화 수용에 유용한 개인 특징’과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하구나’라고 깨닫고. (참가자 A)

그래도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도 가장 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유학생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고. 하게 되는 많은 고민들도 사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중국 사람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지지는 사실 더 크죠. 한국 생활하면서는. (참가자 M)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문화적인 뿌리라고 할까요? 그건 중국 문화에 있으니까. (참가자 J)

이전 20년 동안 하나, 단일한 문화 특성들만 경험했는데,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문화, 뭐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할 때는 먼저 탐험 욕구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제가 또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리고 탐험하고 나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구나. (참가자 C)

처음 제가 2018년도에 그랬어요. 내가 중국 사람인데 왜 재네랑 똑같이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람’이고, 그냥 환경이 다를 뿐이더라고요. 환경이 변하니까 저도 이렇게 변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참가자 H)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나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하기’, ‘기존 개인·문화적 특성 내려놓기’, ‘한국 사람들을 문화 수

용의 통로로 활용하기’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계속 싸우거든요. 저와 제가 싸워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해야 하는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중략) 또 이게 문화라는 게 한 번에 설명되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옷을 입는다던가,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말하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되게 민감해지고. (참가자 H)

중국 문화가 100% 저한테 중요했었는데. 근데 점점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발견한 점이, 만약 중국 문화만 고집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정말 많은 기회를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회도 사실 그렇게 개방된 사회는 아니어서, 만약 한국 사회에서 자원이나 많은 활동에 참가해서 어떤 성과를 남기고 싶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봐야죠. 너무 다르면 안 되고. (참가자 M)

제가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관찰해서 배웠어요.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생각하고. (참가자 E)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들을 뜻하며 (Strauss & Corbin, 1990), 해당 결과들은 개인

이 의도한 바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됨’,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음’, ‘긍정적 성장 경험’, ‘두 문화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느낌’, ‘문화정체성 변화가 없다고 인식’과 ‘자기 불일치 경험’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런 모드(mode)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돌아가면 또 다른 모드로 바뀌고. 마치 두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전환 할 수 있어요. 그 문화에 맞는 모드로. 물론 막 왔을 때는 전환하기 힘들죠. (참가자 A)

두 문화 다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좀 유럽, 아메리카 문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낭만적이고 상당히 자유로운. (참가자 E)

잘 유입하게 됐어요. 좀 더 편해지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좀 다른 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한국이 ‘컴포트존(comfort zone)’인 느낌이에요. 한국어도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좀 원활하게 하고, 그런 한국 문화적 분위기에 좀 편하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B)

좀 더 포용적이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경험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포용하게 되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왜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다른 거더라고요. 좋고 나쁨을 평가 안 하게 되고. 예전에는 어떤 걸 꼭 좋고 나쁨을 따져야 했었는

데, 지금은 안 그렇죠. (참가자 H)

제가 중국에 잠깐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유학한 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이 한국 어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그런 SNS에서 본 거에 머물러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여기 문화를 좀 깊게 알고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 본 적 없는데, 저는 와 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느낌. (참가자 E)

저의 중국 문화정체성이랑 별로 충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적응하다 보면 한국사람 ‘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할 뿐이지, 정말로 제가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 문화정체성을 갖게 된 건 아닌 거죠. 근본적인 중국 문화정체성은 변하진 않았지만, 배우고 적응하면서 문화가 추가되는 느낌인거죠. (참가자 C)

제가 중국인이지만, 사실 이 대만 문제는, 한국에서 제가 오래 있었다보니까, 외부의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완전히 중국에 속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 편으로는, ‘중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냐?’(웃음). 이런 측면에서 좀 문화정체성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G)

핵심 범주

근거이론 방법의 마지막 분석 단계인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 주제를 관통하는 응축된 표현으로 구성된 핵심 범주가 타 범주들과 어떠한 체계적 연결성을 지니는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즉, 본 연구의 주제인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과정’의 핵심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에 근거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우선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범주들과 핵심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가 면담 자료에 근거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윤곽을 그렸다. 해당 절차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내적 갈등 경험으로 부터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고 안정감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기존 문화정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을 도모함’이었다. 즉,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정체성 협상 과정은 이들이 낯선 한국 사회문화에 처함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내면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생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의 문화정체성에 주체적으로 변화를 가하고,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지만,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대로 연구주제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범주 간 관계의 추상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이상 면담 자료에 근거한 범주 분석 결과, 도출된 핵심 범주 그리고 이야기 윤곽에 기반하여 수립한 제한 중국인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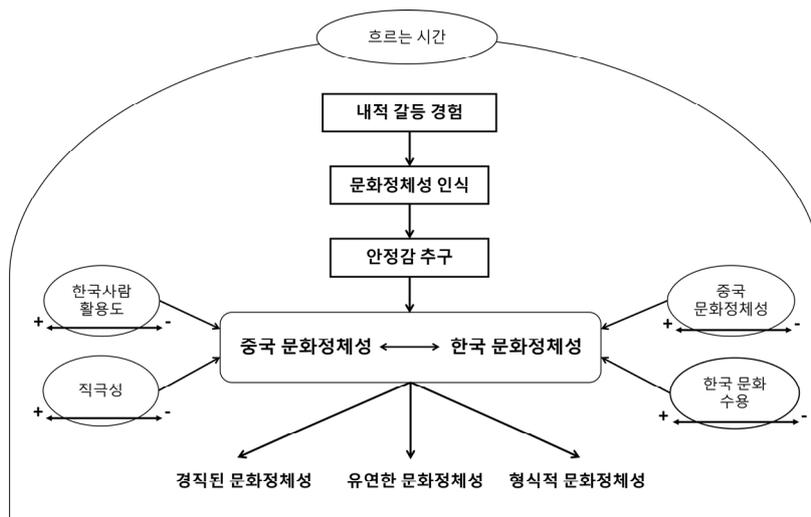


그림 2.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

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의 이론적 모델은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시간의 영향

전체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은 ‘흐르는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유입되고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인식도 뚜렷해짐을 반영하고자 문화정체성 협상 흐름을 시간의 틀 내부에 포함하였다.

문화정체성 협상 촉발 과정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내적 갈등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고 안정감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기존 문화정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을 도모함’으로, 문화정체성의 협상을 유도하는 우선 조건은 경험하는 갈등을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의 출발점을 ‘내적 갈등 경험’으로 설정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문화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얼마나 겪는지, 이러한 갈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불안정감’을 얼마나 해소하고 싶은지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보고한 중국 문화의 일부는 “인정(人情) 많고, 융통성 있고, 억압적인” 문화, 한국 문화의 일부로는 “책임감 있고, 질서 있고, 예의·위계 중시하는” 문화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각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고 각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는 자기개념이 곧 본 연구에서의 중국·한국 문화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정체

성 협상은 기존에 형성된 중국 문화정체성과 한국 사회문화적 적응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한국 문화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문화정체성 협상 촉진/억제 요인

‘중국 문화정체성’은 패러다임 구성요소 중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자신이 중국 문화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유지하고 싶은지에 따라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 수준과 이의 기존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참가자들의 경험을 반영하였다. 요인 아래 기입된 양방향 화살표는 요인의 차원을 표시한 것으로서 ‘중국 문화정체성’에 대한 느낌의 강하고 약함의 수준을 의미한다. ‘적극성’, ‘한국 사람 활용도’, ‘한국 문화 수용’은 패러다임 구성요소 중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요인의 수준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이 촉진 또는 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기존 중국 문화정체성의 특성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한국 문화정체성을 어느 수준까지 형성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요인 아래 양방향 화살표는 개인의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수준, 접하는 ‘한국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수준, 새롭게 마주한 ‘한국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문화정체성 유형

문화정체성 협상은 결과적으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직된 문화정체성’, ‘유연한 문화정체성’, ‘형식적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중국 문화정체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두 문화 간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정치적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 심리적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자신을 어느 문화에 더 가깝다고 설명하기 어려워했으며, 스스로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문화적 요소를 선택하여 수용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와는 달리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두 문화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어려워했고, 중국 사람처럼 생각·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둘 중 어디에도 소속감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문화정체성은 개인의 만족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 가깝다고 느끼며 그런 문화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 동기가 다른 유형의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보다 현저히 떨어졌으며,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기존의 문화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측면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제한 중국인 유학생이 어떠한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변화시키는지 즉,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지낸 중국 학부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경험을 근거이론 접근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과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연구 참가자는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음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 생활 등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중국 문화정체성을 보고하였고, 적응과정에서의 다양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문화정체성의 일부 특징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Ting-Toomey와 Dorjee(2019)가 제안한 통합적 정체성 협상 이론에 의하면, 특정 문화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자신의 기존 문화정체성이 안정성을 지니길 바라는 동기가 아닌 심리적·생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로부터 문화정체성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차이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은 제한 중국인 유학생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안혜신, 장유진, 2023),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또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노력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정체성 협상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

는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Cohen & Kassan, 2018), 심리상담 장면에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한국 문화정체성 변화 및 형성 수준을 인식하도록 돕고, 각 문화정체성에 변화를 시도하여 심리적·생활적 불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정체성을 탐색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연구 참가자들은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Sue와 Suc(2008/2011)가 수정한 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 중 ‘부조화 단계’에서의 개인 경험과 상통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에 대한 느낌과 충돌되는 경험 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자기 불일치 경험은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에서 제시한 ‘자신 관점’에서의 실제적 자기(actual self)와 의무적 자기(ought self)의 불일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화정체성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문화정체성과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 문화정체성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Higgins(1987)는 해당 두 자기의 불일치는 두려움, 긴장됨, 초조함 등의 ‘불안과 관련된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s)’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느낌’, ‘중국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회의감’, ‘중국 문화에 대한 어색함’ 등과 같은 불편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문화정체성 협상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 불일치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 정서들 또한 유심히 다루어 내면의 두 문화정체성을 통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정체성 협

상의 이론적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지 못하였으나, 캐나다 성인 도래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정체성 협상 연구(Cohen & Kassan, 2018)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중첩되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델에서 모두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새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전략 모델 중 ‘문화적 특성 유지’ 차원이 개인의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써 장기 또는 단기 이민자들이 본래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가 문화정체성 협상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응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문화정체성의 유지 수준을 상담자가 파악하고, 문화적응에 방해되는 문화정체성 특징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의 역할은 Cohen과 Kassan(2018)의 모델에서 나이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해졌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ry(2006)의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통합(integration)적’ 문화 태도를 지닌 참가자들이 많았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두 문화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각 문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정체성 협상을 통한 기존 문화정

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문화정체성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 협상에 선행하는 요인이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임이 나타나 단기상담 장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닌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여 문화적응 개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새로운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개인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변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Titzmann과 Lee(2022)는 다양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시간적 요소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문화적응은 시작 시점, 속도, 축적된 시간의 양 등에 따라 개인 간 문화적응 결과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뿐만 아니라 유학 시점, 문화적응 시 개인의 발달단계,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 등이 개인의 문화정체성 협상과 문화적응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가자 간 문화적응 차이를 인식하고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점,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시점 등이 서로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정체성 협상의 시작과 진행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내외적 경험의 시점을 염두하여 적절한 속도로 문화정체성 협상을 진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문화정체성 협상의 결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내적 성장 경험 이외에 ‘경직된 문화정체성’, ‘유연한 문화정체성’, ‘형식적 문화정체성’의 크게 3가지 문화정체성 중 하나를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된 문화정체성과 유연한 문화정체

성은 Berry(1997)의 문화적응전략 유형 중 자국과 주류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풍성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두 문화가 내면에서 여전히 잘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가끔 서로 충돌되어 두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에 반해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문화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두 문화 중 자신의 성향이나 선호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여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의 특징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설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예슬과 김은하(2015)의 연구에서는 ‘통합’ 유형과 자국과 주류사회의 문화 및 정체성을 모두 거부하는 ‘주변화’ 유형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합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유학생들이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자들에 비해 경험하는 미묘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통합 유형의 전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문화정체성과 새롭게 형성된 문화정체성 간 경계의 선명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유형과 수준이 다르므로, 중국인 유학생 내면에 변화된 중국 문화정체성과 새롭게 형성된 한국 문화정체성 간 분리 또는 통합 수준을 상담자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형식적 문화정체성은 Berry(1997)가 제안한 문화적응전략 유형 중 ‘주변화’ 유형을 지닌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Berry(1997)의 모델에서 유형을 나누는 두 차원은 자국 문화와 주류 문화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만, 형식적 문화정체성은 자국과 주류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에 대한 수용을 보이는 유형으로써 현재 속해 있는 문화가 이들에게는 종착지가 아닌 “지나치는 역”처럼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명의 참가자가 이 같은 문화정체성을 보였는데, 두 참가자 모두 중국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선호와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서양 문화에 대한 선호와 동경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은 유사한 아시아 문화권 내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Berry(1997)의 모델에서 제시되는 자국과 지배 문화는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면, 중국과 한국 문화는 큰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닌 아시아 문화로 분류되는 까닭에 자국과 주류 문화 사이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문화정체성 차원에서 개입할 시, 우선 이들의 중국·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확인을 포함한 문화정체성 협상 동기 수준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문화정체성과 협상이라는 내적 작동 아래 이루어지는 변화 과정을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개입할 때 문화정체성 변화

수준 또한 고려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전체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이론적 모델을 제안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 본 모델에 의하면, 상담 실무에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갈등으로부터 자신이 지닌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자가 이들의 중국 문화 특성을 한국 문화 수용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적응을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정체성 협상의 결과로 ‘형식적 문화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중국·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서양 문화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아닌 분명한 문화적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대상이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서양 문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된 집단이 세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통합 유형도 경직된 문화정체성과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Berry(1997)의 문화적응전략 모델로 나누어지는 각 유형의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참가자와의 면담 자료에 근거하여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면담 자료만으로는 문화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 간의 효과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정체성 협상을 돕는 효율적인 개입 방법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어떤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맥락적 조건에는 부정적인 환경 요인만 포함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문화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으로부터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환경 요인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개념 및 하위범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참가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한류 문화, 대학의 좋은 면학 분위기와 같은 긍정적인 맥락적 조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중 긍정적인 환경 요인을 확인하여 상담 또는 심리교육 장면에서 이들의 환경적 강점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변화가 단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정체성의 발달이 역행하지 않고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향해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정적이지 않고(Cohen & Kassan, 2018),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한 문화정체성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Ting-Toomey & Dorjee, 2019). 따라서 한국 유학 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문화정체성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 내에서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훈우, 구해경, 조윤경, 김희중, 현명호 (2017).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研究*, 25(4), 233-238.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33>
- 곽이문, 허비비, 임현수, 강진령 (201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내현적 자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1191-1212.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3.1191>
- 곽정 (2018).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ISS.
<https://www-riss-kr-ssl.access.yonsei.ac.kr/link?id=T14897336>
- 권란, 하정희 (202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1239-1259.
<http://dx.doi.org/10.23844/kjcp.2023.08.35.3.1239>
- 권태희, 정현희 (2020).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7(12), 187-215.
<http://dx.doi.org/10.21509/KJYS.2020.12.27.12.187>
- 김경숙, 김민희 (2014).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67-88.
- 김세경 (201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인간관계의 매개효과 및 체류기간의 조절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7.
- 김정아, 김인경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 김정희, 김영순 (2018). 재한 중국동포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 협상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60, 285-309.
-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류루루, 김정섭, 김은지, 기희경, 김문정 (202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주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5(3), 55-71.
<https://doi.org/10.33645/cnc.2023.03.45.03.55>
- 마효정, 김태훈, 김병찬 (2022). 코로나 시대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6), 173-189.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6.173>
- 박선운 (2019). 민족·문화 정체성 발달이론과 한국 다문화시민교육에의 함의. *다문화교육연구*, 12(4), 1-29.
<http://dx.doi.org/10.14328/MES.2019.12.31.1>
- 안혜신, 장유진 (2023).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의 접근 및 회피요인. *다문화교육연구*, 16(3), 215-251.
<http://dx.doi.org/10.14328/MES.2023.9.30.215>
- 안혜신, 장유진 (2024).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2), 777-813.
<http://dx.doi.org/10.23844/kjcp.2024.05.36.2.777>
- 유아신, 최아론 (202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3(1), 57-74.
<https://doi.org/10.35185/KJET.13.1.4>
- 이경상, 배상률, 이창호 (2018).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사회 생활적응 및 한국사회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5(5), 231-264.
<http://dx.doi.org/10.21509/KJYS.2018.05.25.5.231>
- 이예슬, 김은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295-316.
- 이윤희, Xu, N., 홍소은, 이은별, 양은주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157.
<http://dx.doi.org/10.16983/kjsp.2022.19.2.125>

- 이현진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의 실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ISS. <http://www.riss.kr/link?id=T12282600>
- 이현진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상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대학생활 적응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3), 59-72. <https://doi.org/10.22251/jlci.2022.22.13.59>
- 이홍직 (201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研究*, 19(2), 183-194.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정옥정, 박진형, 허난설 (2021). 재한 중국 학부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군집 유형 분석 및 유형별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4), 889-918. <https://doi.org/10.15753/aje.2021.12.22.4.889>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용비, 이동혁 (2018).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방어기제의 조절역할. *상담학연구*, 19(3), 141-158.
- 조진경 (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RISS. <http://www.riss.kr/link?id=T14211139>
- 조창연 (2012).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토대와 함의: 80 년대와 90 년대의 협상 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3), 27-44.
- 진미경,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4(4), 77-89.
- 최희 (2020).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체성 협상-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4(2), 45-80.
- 최희, 김영순 (2020).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1), 1-21. <http://dx.doi.org/10.22446/mnpisk.2020.14.1.001>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22&menuSeq=3645&publSeq=3&menuCd=92120&menuId=3_8_0&itemCode=02&language=
- Atkinson, D. R., Thompson, C. E., & Grant, S. K. (1993). A three-dimensional model for counseling racial/ethnic minorit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2), 257-277. <https://doi.org/10.1177/001100009321201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https://doi.org/10.1111/j.1464-0597.1997.tb01087.x>
- Berry, J. 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Handbooks in Psychology, pp. 27-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doi:10.1017/CBO9780511489891.006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https://doi.org/10.1111/j.1464-0597.2006.00256.x>
- Bertram, D. M., Poulakis, M., Elsasser, B. S., & Kumar, E. (2014).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2*(2), 107-124. <https://doi.org/10.1002/j.2161-1912.2014.00048.x>
- Cao, C., Zhu, C., & Meng, Q. (2016).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relationships of acculturative stressors among Chinese students from six European union (EU)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8-19.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6.08.003>
- Cao, C., Zhu, C., & Meng, Q. (2017). Predicti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strategies from socio demographic variables and social t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2), 85-96. <https://doi.org/10.1111/ajsp.12171>
- Ching, Y., Renes, S. L., McMurrow, S., Simpson, J., & Strange, A. T. (2017). Challenges faci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2*(8), 473-482. <https://doi.org/10.5897/ERR2016.3106>
- Choudhuri, D. D., Santiago-Rivera, A., & Garrett, M. (2015). 다문화 상담 (오인수 역). 박학사. (원본 출판 2011).
- Cohen, J. (2001). Defining identification: A theoretical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audiences with media character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3), 245-264. https://doi.org/10.1207/S15327825MCS0403_01
- Cohen, J. A., & Kassan, A. (2018). Being in-between: A model of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for emerging adult immigra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2), 133-154. <https://doi.org/10.1037/cou0000265>
- Collier, M. J., & Thomas, M. (1998). Cultural identity: An interpretive perspective. In Kim, Y. Y. & Gudykunst, W. B. (Eds.), *Theor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99-122). Sage.
- Corbin, J. M., & Strauss, A. L.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https://doi.org/10.1007/BF00988593>
-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4th ed.). 학지사. (원본 출판 2018년).
- Cross, W. E., Jr. (1995). The psychology of nigrescence: Revising the Cross model. In J. G. Ponterotto, J. M. Casas, L. A. Suzuki, & C. M. Alexander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 (pp. 93-122). Sage Publications, Inc.
-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Multilingual Matter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 163-194.

- Heppner, P. P. (2006).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becoming cross-culturally competent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idential addr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147-172. <https://doi.org/10.1177/0011000005282832>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ttps://doi.org/10.1037/0033-295X.94.3.319>
- Hu, W., & Zhang, Z. (2013).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problems at university: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cademic Research International, 4*(2), 400-406.
- Jenkins, R. (1996). *Social identity*. Routledge.
- Juang, L. P., & Cookston, J. T. (2009).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 475-496. <https://doi.org/10.1007/s10935-009-0177-9>
- Kitano, H. H. L. (1982). Mental health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In E. E. Jones & S. J. Korchin (Eds.), *Minority mental health* (pp. 149-164). Praeger.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https://doi.org/10.1037/0033-2909.114.3.395>
- Lee, J. J., & Rice, C. (2007). Welcome to America? International student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Higher Education, 53*(3), 381-409. <https://doi.org/10.1007/s10734-005-4508-3>
- Lee, Y. Y., Kim, H., Nam, S. K., Jin, L., & Yang, E. (2011). The acculturation experienc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Coping and perceived changes in the cultural transition.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3), 379-403. <http://dx.doi.org/10.16983/kjsp.2011.8.3.37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uo, M., Zhang, X., Peng, F., Zhao, J., & Deng, H. (2021). Predictors of acculturation attitud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PLoS ONE, 16*(11), e026061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0616>
- Ruiz, A. S. (1990). Ethnic identity: Crisis and resolu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18*(1), 29-40. <https://doi.org/10.1002/j.2161-1912.1990.tb00434.x>
- Ryder, A. G., Alden, L. E., &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https://doi.org/10.1037/0022-3514.79.1.49>
- Sbaraini, A., Carter, S. M., Evans, R. W., & Blinkhorn, A. (2011). How to do a grounded theory study: A worked example of a study of dental practice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1*, 1-10.
- Schwartz, S. J., Montgomery, M. J., & Briones, E. (2006). The role of identity in acculturation among immigrant people: Theoretical propositions, empirical questions, and applied recommendations. *Human Development, 49*(1),

- 1-30. <https://doi.org/10.1159/000090300>
- Schwartz, S. J., Zamboanga, B. L., Rodriguez, L., & Wang, S. C. (2007). The structure of cultural identity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emerging adult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9(2), 159-173.
- Sherry, M., Thomas, P., & Chui, W. H. (2010). International students: A vulnerable student population. *Higher Education*, 60, 33-46. <https://doi.org/10.1007/s10734-009-9284-z>
- Smith, R. A., & Khawaja, N. G.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6), 699-713.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1.08.004>
- Strauss, A. L.,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L., & Corbin, J. M.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2nd ed.). 현문사. (원본 출판 1998년).
- Sue, S., & Sue, D. W. (1971). Chinese-America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Amerasia Journal*, 1(2), 36-49.
- Sue, D. W., & Sue, D. (2011).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공역; 5th ed.). 학지사. (원본 출판 2008년).
- Sue, S., & Zane, N. W. (1985).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4), 570-579. <https://doi.org/10.1037/0022-0167.32.4.570>
- Sussman, N. M. (2002). Testing the cultural identity model of the cultural transition cycle: Sojourners return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4), 391-408. [https://doi.org/10.1016/S0147-1767\(02\)00013-5](https://doi.org/10.1016/S0147-1767(02)00013-5)
- Swann, W. B., Jr.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38-1051. <https://doi.org/10.1037/0022-3514.53.6.1038>
- Thornberg, R., Perhamus, L., & Charmaz, K. (2014). Grounded theory. In O. N. Saracho (Ed.),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Vol.1, pp. 405-439).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 Ting-Toomey, S., & Dorjee, T. (2015). Intercultural and intergroup communication competence: Toward an integrative perspec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20, 503-538.
- Ting-Toomey, S., & Dorjee, T. (2019).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2nd ed.). Guilford Press.
- Titzmann, P. F., & Lee, R. M. (2022). New temporal concepts of acculturation in immigrant youth.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6(3), 165-172. <https://doi.org/10.1111/cdep.12458>
- Tseng, W. C., & Newton, F. B. (2002).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ies for well-being. *College Student Journal*, 36(4), 591-598.
- Walker, D., & Myrick, F.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559. <https://doi.org/10.1177/1049732305285972>
- Wei, M., Liao, K. Y.-H., Heppner, P. P., Chao, R. C.-L., & Ku, T.-Y. (2012). Forbearance

- coping, identification with heritage cultur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97-106. <https://doi.org/10.1037/a0025473>
- Yan, K., & Berliner, D. C. (2011).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trends, motivations, acculturation features and adjustment challeng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 173-184. <https://doi.org/10.1007/s12564-010-9117-x>
- Zhang-Wu, Q. (2018).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8(2), 1173-1197. <https://doi.org/10.32674/jis.v8i2.139>
- 원 고 접 수 일 : 2024. 07.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8. 30
게 재 결 정 일 : 2024. 09. 21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Proc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 Grounded Theory Approach

Dongjae Park

Yonsei University
M.A.

Dong-gw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

The study utiliz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explore the process of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irtee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hree consecutive years. Data analysis followed the coding procedures and paradigm model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 This resulted in 112 concepts, 52 subcategories, and 21 categories related to the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process of Chinese students. The study found that recognizing own cultural identity and a desire for well-being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negotiation process. The results suggest that Chinese students perceive a need for cultural identity transformation. Furthermo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their negotia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regarding the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re discussed, along with comparisons to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in other group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cultur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grounded theory approach